

서울지역 여성CEO 기업의 현황과 시사점

박희석 센터장 · hspark@si.re.kr

양승희 연구원 · sunsh@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I.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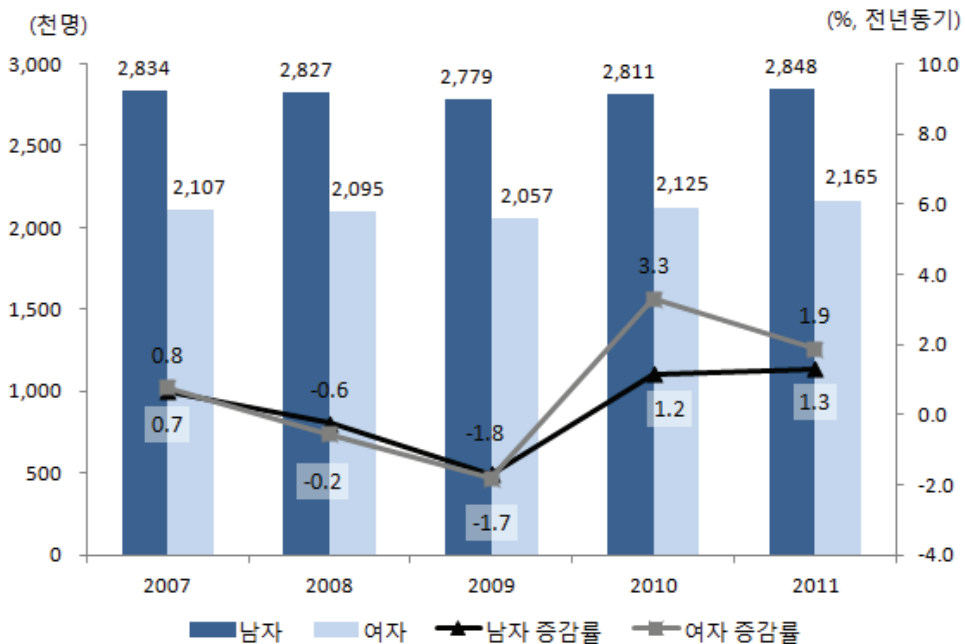
II. 서울지역 여성 CEO 기업의 현황

1. 일반 현황
2. 자치구별 · 업종별 현황 및 특성

III. 관계자 인터뷰

I. 들어가며

- 자아성취를 위해 사회진출을 원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경기 불황으로 전업주부들이 취업전선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고 발휘하려는 욕구가 커짐
 - 또한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을 당연시 여기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선이 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창출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 여성의 사회 참여율을 비롯한 취업자의 증감률은 남자보다 상회하며 증가추세
 - 2011년 기준으로 서울의 여성 취업자는 2,165명으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취업자 수의 43%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여성 취업자 증감률은 살펴보면, 2010년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상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 서울의 취업자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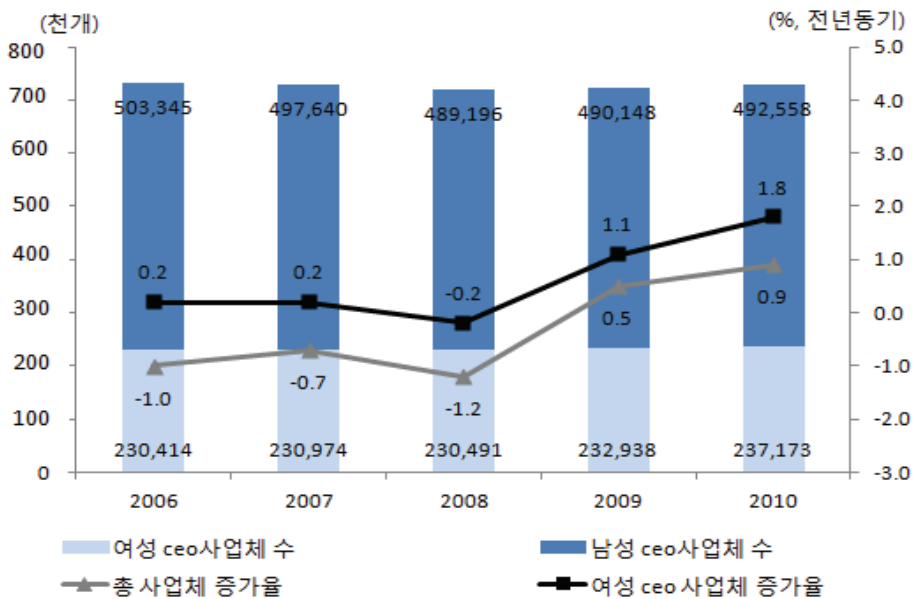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창업으로 우리나라 여성 기업체 및 여성경영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의 특유의 감성, 서비스 마인드, 꼼꼼함, 섬세함 등 강점을 활용하여 여성 기업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음
 - 여성 기업은 중소기업체보다 부채비율이 낮고 수익성이 높아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음¹⁾
-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기업의 경영환경, 자금 조달,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여성 CEO 기업의 애로사항이 존재
 - 여성이 일과 가사 및 육아를 양립하고 남성중심의 비즈니스 관행에서 여성이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쇼핑몰,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에서의 창업이 진행되고 있어 폐업으로 연결되는 사태가 반복
- 따라서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시 여성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여성 CEO의 인터뷰를 통해 애로사항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함
 - 최근 5년간(2006~2010) 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시 여성 CEO기업의 업종별·자치구별 현황을 분석
 - 여성 CEO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체 경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보고자 함

¹⁾ 중소기업청,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본 조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실시. 표본은 대표자가 여성인 전국의 사업체총조사.

II. 서울지역 여성 CEO 기업의 현황

1. 일반현황

- 서울 여성CEO 기업의 사업체 성장률은 서울 전체 사업체의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
 - 최근 5년간 서울지역의 여성 CEO 기업은 서울 전체 사업체의 약 32%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서울지역의 여성 CEO 사업체 성장률은 서울의 총 사업체 성장률보다 상회하고 2010년 기준으로 0.9%p 큼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6~2010)

<그림 2> 서울의 전체 및 여성 CEO 사업체 수 추이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에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총 237,173개사로 서울 전체 사업체의 32.5%를 차지하고 2006년에 비해 1.1%p 증가

- 대부분의 업종은 증가하였으나 2010년 기준으로 여성 CEO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 31.0%, 숙박 및 음식점업이 29.1%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6년 대비 비중이 증가된 업종을 살펴보면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p,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0.6%p 증가
- 여성 CEO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의 특유의 섬세함과 서비스마인드를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을 하였으나 음식점의 경우는 경기침체로 소리심리가 위축되고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서울시 여성 CEO 기업 사업체 현황

산업분류명칭	여성 CEO 사업체		비중'		2006년 대비 성장률
	2006	2010	2006	2010	
농업, 임업 및 어업	20	1	0.0	22	4
광업	52	2	0.0	22	1
제조업	10,262	10,062	4.5	4.2	-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2	0.0	0.0	-66.7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25	40	0.0	0.0	60.0
건설업	1,493	1,834	0.6	0.8	22.8
도매 및 소매업	72,976	73,408	31.7	31.0	0.6
운수업	2,994	2,884	1.3	1.2	-3.7
숙박 및 음식점업	72,059	68,905	31.3	29.1	-4.4
출판,영상, 방송 및 정보서비스업	1,522	1,749	0.7	0.7	14.9
금융 및 보험업	798	1,076	0.3	0.5	3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9,365	10,640	4.1	4.5	1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96	3,154	1.0	1.3	37.4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1,853	2,222	0.8	0.9	19.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5	52	0.0	0.0	48.6
교육 서비스업	14,430	15,806	6.3	6.7	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200	7,846	2.7	3.3	2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7,832	8,149	3.4	3.4	4.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6,265	29,339	11.4	12.4	11.7
총 사업체 수(개)	230,414	237,173	31.4*	32.5*	2.9

주 : 비중' 은 총 여성 CEO 사업체 수 대비(업종별 여성 CEO 사업체/총 여성 CEO 사업체 수)

*는 전체 사업체수 대비(여성 CEO 사업체/ 전체 사업체)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6,2010)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CEO 사업체가 많이 분포

- 여성 CEO 사업체가 많은 자치구는 중구,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나타남
- 2006년 대비 2010년 여성 CEO 사업체 성장률을 살펴보면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등에서 성장하였고 서대문구, 중구, 동대문구 등에서 하락
- 중구에는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

<표 2> 서울 여성 CEO 기업 자치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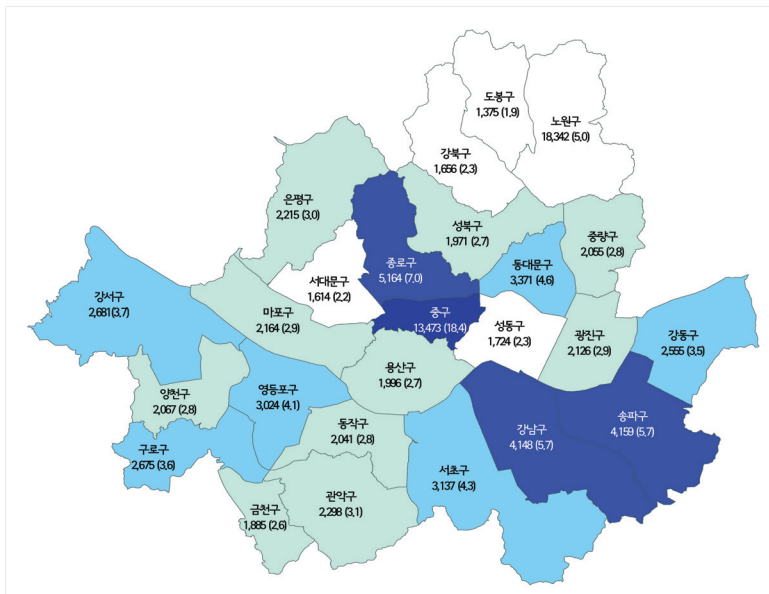
자치구별	여성 CEO 사업체		비중 ¹		2006년 대비 성장률*
	2006	2010	2006	2010	
종로구	11,926	11,901	1.6	1.6	-0.2
중구	22,170	20,276	3.0	2.8	-8.5
용산구	5,995	5,975	0.8	0.8	-0.3
성동구	6,515	6,412	0.9	0.9	-1.6
광진구	8,000	8,305	1.1	1.1	3.8
동대문구	10,075	9,759	1.4	1.3	-3.1
종랑구	8,124	8,695	1.1	1.2	7.0
성북구	7,900	8,187	1.1	1.1	3.6
강북구	6,793	6,810	0.9	0.9	0.3
도봉구	5,542	5,773	0.8	0.8	4.2
노원구	8,047	8,163	1.1	1.1	1.4
은평구	7,927	8,497	1.1	1.2	7.2
서대문구	7,462	6,518	1.0	0.9	-12.7
마포구	8,340	9,231	1.1	1.3	10.7
양천구	8,156	8,600	1.1	1.2	5.4
강서구	9,296	10,154	1.3	1.4	9.2
구로구	7,690	8,878	1.0	1.2	15.4
금천구	5,752	6,613	0.8	0.9	15.0
영등포구	10,570	11,427	1.4	1.6	8.1
동작구	7,491	7,492	1.0	1.0	0.0
관악구	9,387	9,411	1.3	1.3	0.3
서초구	10,358	10,820	1.4	1.5	4.5
강남구	15,260	16,143	2.1	2.2	5.8
송파구	12,743	13,533	1.7	1.9	6.2
강동구	8,895	9,600	1.2	1.3	7.9
계	230,414	237,173	-	-	2.9

주 : 비중¹은 총 여성 CEO 사업체 수 대비(자치구별 여성 CEO 사업체/총 여성 CEO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6,2010)

2. 자치구별업종별 현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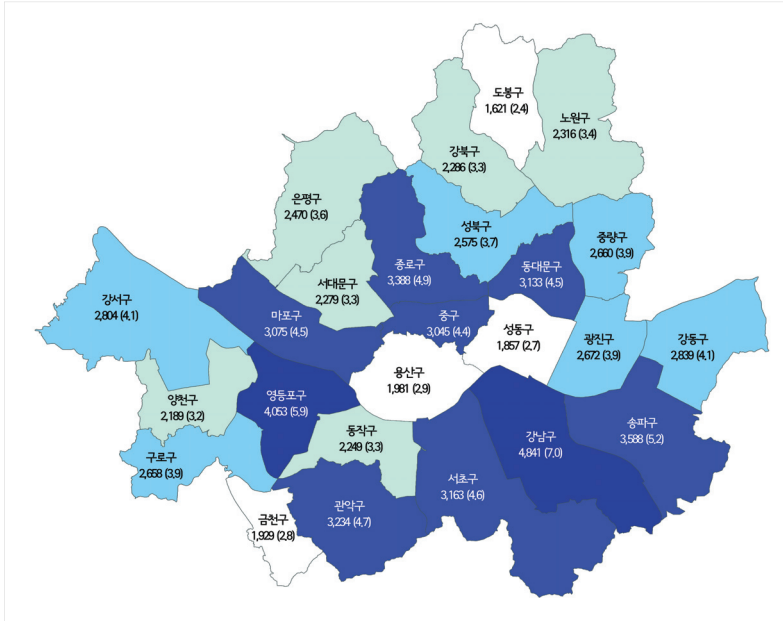
- 2010년 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서울 CEO기업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주요 3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세부업종별로 분석
 - 주요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분석

- 도매 및 소매업은 중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개인기타 서비스업은 모든 자치구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
 -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자치구는 중구가 13,473개로 18.4%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구(4,184개, 5.7%), 송파구(4,159개, 5.7%) 순으로 나타남
 -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강남구가 4,841개로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4,053개, 5.9%), 송파구(3,588개, 5.2%) 순으로 나타남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강남구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송파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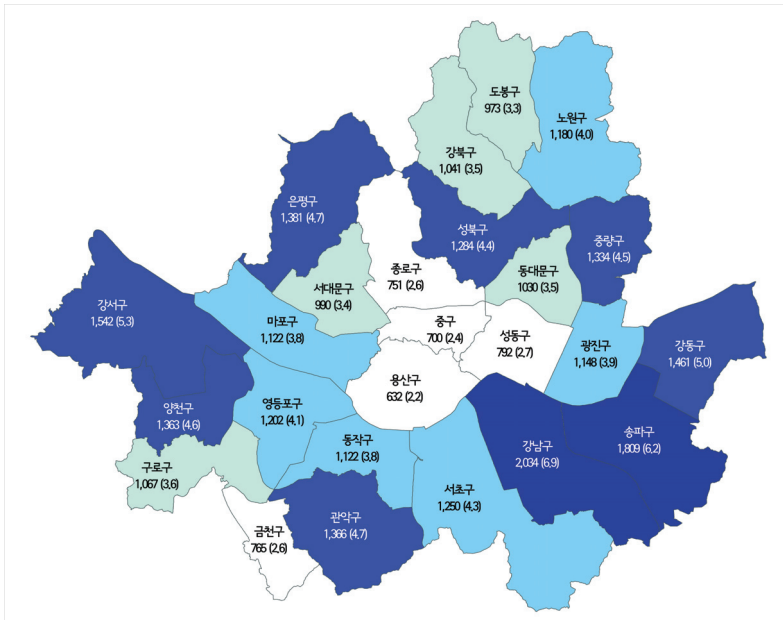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

<그림 3> 도매 및 소매업 여성 CEO 사업체수 자치구별 현황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

<그림 4> 숙박 및 음식점업 여성 CEO 사업체수 자치구별 현황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

<그림 5>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여성 CEO 사업체수 자치구별 현황

- 주요 업종(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모두 섬세한 감성, 서비스마인드 등 여성 특유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냄
 - 도매 및 소매업은 섬유·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이 18,551개로 25.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용품 도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으로 나타남
 - 패션이나 가정용품 등 여성이 잘 다룰 수 있는 업종이고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 창업할 수 있어 강세를 보임
 - 또한 여성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비교적 돌발상황이 적은 운영을 할 수 있음

〈표 3〉 도소매업 세부 업종별 여성 CEO 현황

업종	총 사업체 수	여성 CEO 수	비중*
자동차 판매업	1,128	68	0.1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2,869	289	0.4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404	41	0.1
상품 중개업	3,225	387	0.5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1,932	435	0.6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2,553	2,736	3.7
가정용품 도매업	33,635	12,651	17.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18,257	1,820	2.5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5,332	643	0.9
기타 전문 도매업	10,622	1,482	2.0
상품 종합 도매업	483	50	0.1
종합 소매업	18,476	8,121	11.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7,082	7,622	10.4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7,880	1,378	1.9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9,455	18,551	25.3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1,124	2,257	3.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966	2,289	3.1
연료 소매업	1,121	118	0.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2,738	11,087	15.1
무점포 소매업	4,707	1,383	1.9
계	209,989	73,408	100

주 : 비중은 전체 여성 CEO 수 대비(업종별 여성사업체/전체 여성 CEO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

-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음식점업이 65.3%(44,980개)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29.5%를 차지
- 요리, 살림 등 여성의 특성을 살려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강세를 보이고 전문화된 프랜차이즈로 보다 쉽게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숙박 및 음식점업 세부 업종별 여성 CEO 현황

업종	총 사업체 수	여성 CEO 수	비중*
숙박시설 운영업	3,414	1,759	2.6
기타 숙박업	3,630	1,870	2.7
음식점업	76,743	44,980	65.3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31,628	20,296	29.5
계	115,415	68,905	100.0

주 : 비중은 전체 여성 CEO 수 대비(업종별 여성사업체/전체 여성 CEO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

- 기타 및 개인서비스업은 미용, 욕탕 서비스업이 65.3%(19,148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4.3%를 차지
- 미용실, 네일아트, 마사지 등 여성 특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훈련학교에서 위와 같은 업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전문기술을 비교적 쉽게 터득할 수 있고 운영부담이 적어 주부 등 여성들의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5〉 기타 및 개인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여성 CEO 현황

업종	총 사업체 수	여성 CEO 수	비중*
산업 및 전문가 단체	1,314	108	0.4
전문가단체	141	9	0.0
기타 협회 및 단체	13,279	2,382	8.1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516	202	0.7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5,954	460	1.6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7,846	2,829	9.6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5,305	19,148	65.3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871	4,201	14.3
계	68,226	29,339	100.0

주 : 비중은 전체 여성 CEO 수 대비(업종별 여성사업체/전체 여성 CEO 사업체 수)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

III. 관계자 인터뷰

이여영씨는 서울대 천연섬유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에 홍대에서 유기농 막걸리 전문점을 창업하였고 현재는 오사카까지 분점을 내는 등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막걸리 전문점에서 수업한 후배들이 독립해 차린 와인 포장마차를 여는 일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젊은 여성 CEO인 이여영씨를 통해 경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들어보기로 하자.



Q1. 창업하시게 된 동기,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유기농 막걸리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셨는지?

▶ **이여영 대표:** 중앙일보 문화부에 근무할 때 술과 음식관련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막걸리 장인들을 취재하면서 막걸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회사를 나온 뒤 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기자시절 인터뷰했던 막걸리 장인 한분을 도와드리려고 판매점을 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Q2. 본점에 이어 2호점도 개점하고 오사카까지 진출했는데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여영 대표:** 최고의 막걸리와 말이 더 필요없는 서비스 정신.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애주가로서, 고급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투자해서 더 고급스럽고 좋은 막걸리를 만들어 시장에 보여주고자 노력중입니다. 외국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로벌 한식 안주와 최고급 막걸리를 매치해 세계로 뻗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Q3.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 ▶ **이여영 대표:** 진정성입니다. 손님들은 다 압니다. 속일 수 없죠.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 직접 사야합니다. 지방의 농가들과 직거래를 하는 비중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 마음이 담긴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잘 안지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에 얼마를 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희는 홍보와 마케팅에 1원도 지출하지 않습니다. 음식과 서비스, 그 본질에 진정성이 있으면 손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Q4. 경영을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혹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협회가 있으십니까?

- ▶ **이여영 대표:**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힘들때도 정부기관의 자금은 이미 타가는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농림부는 아이디어의 주인인 저희는 속 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더군요. 일본에 진출할때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번거롭게 방해만 했죠. 삼성도 철수한 일본시장에서 저희같은 작은 가게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부딪히며 지금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독립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기관에서 도와준다면 훨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도움을 청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힘들어도 홀로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Q6. 여성 CEO로서 어려운점과 좋은점은 어떻게 있으십니까? 또한 젊은 여성 CEO나 외식업 부문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여영 대표:** 여성이라서 좋거나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장사 경험이 없고 기자출신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정도입니다. 여성이라서 사람들이 더 주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회사가 성장하면서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부각될거라 생각해서 조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 유명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Q7. 후배 여성 창업가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 ▶ **이여영 대표:** 남들과 세상이 정한 규칙대로 사업을 하지 말고, 내가 정한 원칙대로 경영을 해서 성공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 창업가 동료들을 만나 보면 세상이 정한 규칙에 휘둘리거나 남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내 방식으로 깨끗하게 해나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원칙이 옳건 그르건 그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기성의 규칙을 외면하고도 살아남으려면 남 다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규칙도 두려움도 없이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중소기업청, 201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20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2012)
- 한국여성개발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2008)
- <http://kosis.kr/> (국가통계포털)